https://doi.org/10.36034/yncdoi.2022..82.291

木齋 洪汝河의 저술과 문예의식

양 승 호*

Ⅰ. 머리말
Ⅱ. 목재 홍여하의 저술
Ⅲ. 목재 홍여하의 문예의식
Ⅳ. 맺음말

국문초록

17세기는 밖으로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정립되고 있었고, 안으로는 전란의 극복을 위한 국가 기반의 재정비라는 대명제 속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 시기 목재는 주자와 퇴계의 성리학을 영남남인의 독창적 사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목재의 사상과 가치관이 투영된 그의 저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저술에 반영된 문예의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당시 조선 문단을 주도하고 있는 문예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목재가 12권 6책의 문집에 남겨 놓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고,『彙纂麗史』와『東國通鑑提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 blue7518@daum.net

綱』이라는 두 권의 굵직한 역사서를 통해 그가 혼란한 시기에 냉철한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으며, 국가와 백성을 위해 필요한 역사의식과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목재의 문예의식은 道本文末의 인식 계승, 明理의 탐구와 條理의 강조, 存心養性을 통한 文의 體現, 經世意識을 통한 治世之文의 具現으로 귀결할 수 있었다. 이에 17세기 조선 문단을 주도하고 있는 문예의식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영남남인들만의 독창적 문예의식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었다.

◈ 주제어
목재, 홍여하, 문집, 저술, 문예의식

Ⅰ. 머리말

목재 홍여하는 1620년 4월 10일에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서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 전까지 태어난 고향에서 자라고 수학하였으며, 과거급제 후 5년의 관직 생활 기간에 고향을 떠나 외직에 머무르다가 유배 후 낙향하여 고향에서 머무르며 공부와 창작활동, 인재양성에 힘쓰다 1674년 12월 14일에 고향 상주에서 영면하여 예천 흑송리에 장사 지냈다.

목재가 살았던 17세기 조선은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밖으로는 임진왜란을 통해 중국은 明에서 淸으로 국가와 지배 민족이 바뀌었으며, 일본은 도요토미히에요시에서 도쿠가와이에야스의 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런 戰禍 속에 조선은 겉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대혼란의 시간을 겪고 있었다. 조선 통치 이념의 근간이 되는 유학의 위상은 실추하였으며, 이를 신봉하던 지식인들은 백성의 중심이 되어주지 못하고 흔들렸다. 얼마 후 戰亂의 火魔를 극복하기도 전에 淸의 침략으로 인해 야기된 병자호란으로 조선의 상황은 더욱더 피폐해졌으며, 국가의 존위에 대한 위기까지 초래하였다.

안으로는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고심하고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던 지식인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권력 쟁취에 골몰하였다. 동인과 서인의 당파싸움으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올바른 대비도 하지 못한 체 임진왜란을 초래하였다. 그 후 동인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북인과 남인으로 다시 나누어졌고, 인조반정을 통한 광해군의 폐위로 북인 정권은 몰락하였다. 이후 서인과 남인과의 권력 쟁탈은 병자호란 이후 예송논쟁과 여러 換局으로 엎치락뒤치락한 끝에 서인 정권으로 굳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급변화는 상황 속에 당시 지식인들은 조선의 이념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유학을 계승한 주자학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영남남인 출신의 목재와 여타 비슷한 입장의 남인들은 관직 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

었다. 그래서 그들은 관직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혼란한 시기에 초래한 변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朱子의 성리학을 계승한 인물이 退溪임을 자처하여 차별성을 가지는 그들만의 독창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성립하게 된다. 이 시기 목재는 주자와 퇴계를 존숭한 인물로 당시 영남남인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목재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초반에는 그의 대표적 저서인 『彙纂麗史』·『東國通鑑提綱』 때문에 역사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1]과 그의 대표적 저작인 『周易口訣』·『儀禮考證』·『四書發凡口訣』·『四書口義』 때문에 경학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2]이 많았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이후에 목재의 문학가적인 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는데, 그중 한 편은 다양한 전고와 용사가 동원되어 해박한 역사관이 드러나는 시와 양명학 배척 태도가 보이는 시 위주로 연구한 논문[3]이었고, 다른 한 편은 목재가 남긴 한시 작품들이 해박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에 관해 읊은 시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통한 자기반성을 읊은 시 위주로 창작하였으며 그의 시 세계가 주자학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영남지역 퇴계학파의 이론을 확립함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논문[4]이 있다. 또 목재의

1) 김선화, 「洪汝河의 歷史認識」,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7.
신항수, 「17세기 중반 홍여하의 전제의식」, 『韓國思想史學』8, 한국사상사학회, 1997.
김영택, 「木齋 洪汝河의 歷史意識과 文學觀 硏究」,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장윤석, 「17世紀 嶺南 南人 吳澐과 洪汝河의 歷史認識」,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도현철, 「목재 홍여하의 역사서 편찬과 고려사 인식」, 『韓國思想史學』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박인호,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박인호, 「『휘찬여사』<열전>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장서각』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 홍원식,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성리설」, 『韓國思想史學』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전재동, 「讀書詩를 통해 본 洪汝河의 經書 解釋」, 『大東漢文學』 35, 대동한문학회, 2011.
전재동,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2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3) 전재동, 「洪汝河의 詩世界 硏究:文學論과 作詩 樣相 分析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37, 대동한문학회, 2012.

한시에 나타나는 개별적인 특징을 술회시와 교유시라는 장르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5]도 있다.

그러나 아직 목재의 작품 전체를 주도하는 그의 문예의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없다. 목재는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긴 문학가였는데, 그의 문학가적인 면모를 살펴보려면 그 작품 전반에 흐르는 문예의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주자와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여 당시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학문과 의식이 투영된 저술과 작품들에 대한 고찰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목재가 남긴 문집과 저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가 남긴 글에 나타나는 문예의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목재 홍여하의 저술

목재는 12권 6책의 비교적 적지 않은 양의 『木齋先生文集』을 남겼다. 목재 사후 그의 자제들이 목재의 문인이었던 金宇泰가 찬집한 언행록을 李玄逸에게 전해주며 행장을 부탁하였다. 행장의 말미에 “今上 3년 3월 24일 庚子日에 載寧 李玄逸이 삼가 쓰다.”[上之三年三月二十四日庚子載寧李玄逸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숙종이 즉위하고 3년이 되는 1677년 3월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문집의 편찬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1689년 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집권하고 난 뒤 목재는 1693년에 상주의 近嶌書院에 종향되었고, 그 해에 지인이었던 權愈가 문집의 서문을 완성한 것으로 보아 그즈음 문집의 편찬이 대략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간행되지는 못한 것

4) 최금자, 「木齋 洪汝河의 漢詩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7.
5) 최금자, 「목재 홍여하의 「述懷」시에 반영된 사회현실」, 『嶺南學』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최금자, 「목재 홍여하의 교유양상 연구-교유시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9, 동양한문학회, 2021.

같다. 문집 11권 부록에 그의 후손 洪大龜의 행장이 수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洪大龜가 죽고 난 1737년 이후에 현전하는 문집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목재는 조선중기를 살다간 인물로 그가 남긴 문집의 작품들이 없다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권수에 따라 수록된 장르의 작품들을 개괄해봄으로써 그가 저술에 있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대략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집 첫머리에 홍여하의 지인이었던 權愈가 1693년에 지은 序文이 있고, 目錄은 없다. 문집의 서문을 통해 목재가 작품 창작에 중점을 두었던 가치관과 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평생 높이고 계승한 것은 朱子와 退溪였는데, 그 글에 대해 꿰뚫어 연구하고 환히 이해하는 데에 더욱 마음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문장은 뜻대로 녹여내어 이치가 순조롭고 표현이 통달하여 마치 근원의 물이 패연히 흘러나오듯 쏟아졌다. 글을 쓰는 방법과 체제는 계승한 곳이 있었으나 글의 기상과 뜻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아, 글이 두루 세련되면서 넉넉하였으며 막힌 것을 틔우고 맺힌 것은 풀어주어 마음에 막힘이 없으니, 사람을 開導시킬 만한 점이 있었다. 詩 또한 변화에 감응하여 손이 따라가고 뜻이 이르는 곳에 붓이 따라가니 마치 무성한 나무에 꽃이 피어나듯 성대하였다. 감정과 운자에는 국한되는 바가 없었고 글의 이치는 주장하는 바가 있었으며, 체재는 우아하고 순수하며, 경치에 맞게 시를 지어 詩語가 헛되거나 거짓되지 않으니, 후인들을 흥기시킬 만한 점이 있었다. 道를 떠나서 구차히 문장을 지은 적이 없고, 이치를 버리고 구차히 글을 지은 적이 없으며 이단의 학문에 경도되지 않고, 세태에 유혹되지 않았다. 법도에 근거하여 합당하게 실천해서 뛰어나고도 훌륭했으니, 크게 보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점이 있었다.[6]

그는 평생 주자와 퇴계를 존숭하여 道와 德에 힘을 쓸 줄 모르고 다

6) 洪汝河, 『木齋集』 권1, 1면, <木齋先生文集序>, “平生所尊述 晦 庵, 陶山所 於其書貫究之 解會之 尤盡心焉 故其文舒志取鎔 理順辭達 沛然若濬源吐流 規撫有所承 氣意靡少置 博練弘裕 決蔽析結而心無滯用 有可以開道人者 詩亦隨手感變 意到筆從 藹然若茂樹發英 情韻無所局 詞理有所主 體裁雅醇 值境造耑 語不虛假 有足以起後人者 未嘗釋道而苟爲文 未嘗捨理而苟爲詞 不傾側於異學 不誘惑於事態 據度行當 偉如也 彬如也 有所于大觀而自樂焉.”

만 文辭를 능함으로 삼는 것은 기예일 뿐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道와 德이 통하게 되면 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고 여겼고, 道를 잃어버리면 글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였다. 道와 德을 수양하는데 마음을 다하였고, 六經과 성현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힘을 쏟았으며, 이단의 학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글은 순수하고 우아하면서 진실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기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이다. 위 서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글을 읽고 공부를 해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그가 가진 학문의 기준으로 지어진 작품들이 수록된 문집 또한 그 영역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집의 권수별로 수록된 장르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 1~2는 詩이다. 1642년 23세경에 지은 시부터 1674년에 세상을 떠나던 해에 지은 시까지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그가 지은 시들을 대략 살펴보면 그의 시는 典故와 用事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은 어렵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의 시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독서를 통해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詩作을 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의 생활을 살펴보고 느낀 감회를 읊은 시작이 많았다. 유학자이며 양반이었지만 백성의 고통을 항상 염려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그의 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권 3은 疏이다. 1656년 1월에 올린 <上番疏>, 같은 해 11월에 咸昌儒生을 대신하여 지은 <請罷採銀疏>, 1659년 5월에 경성 판관 시절 지어 올렸다가 國恤로 인해 還給되었던 <應求言敎疏>등 4편이 실려 있다. 그가 올린 疏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올곧은 신념을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그는 35세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였지만 40세를 전후하여 좌천되어 유배 가게 되며 그 후에는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는다. 그가 여러 번의 좌천과 유배를 겪은 이유도 그가 올린 疏때문이었는데, 이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다. 무리를 지어 붕당을 하며 올바른 治道를 하여야

할 지식인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분개하며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그의 상소는 지금도 膾炙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글을 통해 그는 어렵게 진출한 벼슬길에서 여러 번 시련을 겪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점이 그가 영남의 4대 유학자로 추증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권4는 書이다. 李榘, 權大載, 許穆, 李瑄, 李允諧, 鄭鳳輝 등 知舊 門人들과 나눈 편지로, 인물별로 편차되어있다. 그가 교류했던 인물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를 통해 그의 인맥과 학통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그는 당대의 문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문학적, 역사적, 철학적으로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이런 글을 통해 그의 문학관, 역사관을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당대 지식인들의 주된 연구사와 관심사 또한 무엇이었는지도 고찰해 볼 수 있다. 또 편지를 꼼꼼히 살펴보면 그가 문인이자 유학자로 당대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에서는 당시의 평범한 아들이자,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조금 엿볼 수 있다.

권5~6은 說 19편, 策題 9편, 序 10편, 記 14편, 跋 8편, 箴 11편, 銘 3편, 頌 2편, 贊 5편, 上樑文 2편이다. 이 권에서는 그의 다양한 문예활동을 엿볼 수 있다. 古今의 奇書를 다 읽고 느낀 감회를 적은 說, 天下의 名山을 두루 유람해보며 여정 속에 아름다운 풍광을 읊은 記, 학자로서의 바른 삶에 대한 조금의 흐트러짐도 용납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고 쓴 箴, 銘, 贊 등을 통해 그가 학자로서 얼마나 폭넓게 사고하고 고민했으며 문인으로서 다방면에 고른 자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권7~8은 祭文 18편, 碣銘 10편, 行狀 9편이다. 祭文은 장인 黃德柔, 장모 全氏, 鄭鳳輝, 趙絅 등에 대한 것과 屛山書院 柳袗, 近嵒書院 李德馨 등의 奉安文이다. 碣銘은 李鵬壽, 張興孝, 李徽逸 등, 行狀은 조부 洪德祿, 부친 洪鎬, 柳袗, 權好文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권에서는 그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의 명망을 엿볼 수 있다.

권9는 讀書箚記, 雜著이다. 讀書箚記는 『周易』, 『書傳』, 『詩傳』, 『春秋』, 『孟子』, 『大學』을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글들로, 특히 『周易』에서는

주자의 本義를 중시하여 공부한 흔적이 역력하며, 『大學』 부분에는 저자의 글로 유명한 <明明德贊>, <四書發凡口訣>이 실려 있다. 雜著는 田結, 賦稅, 租庸調, 築城 등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드러낸 글들로, 중국의 제도에 비추어 조선의 제도를 설명하고 비교해 놓았다. 이 권에서는 그가 학자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으며 후학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권10은 『東史提綱』의 凡例, 『彙纂麗史』의 凡例 및 各誌, 傳, 世家 등에 실린 總論 또는 史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東史提綱』은 『東國通鑑』을 刪節하여 만든 책인데 미처 脫稿하지 못하고 영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彙纂麗史』는 그가 젊었을 때 불타는 열정으로 기존의 시대사를 바로잡기 위해 만든 고려의 역사서로, 이 凡例에서 그 修史方法 등을 밝혔고 總論이나 史論을 통하여 역사의식을 드러냈다. 고려시대사를 宋, 金, 元의 大陸史와 함께 총체적인 면에서 밝혀야 한다는 소신으로 종래의 고려사에 누락 된 부분이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려고 애쓴 면이 보인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이 중국이 아닌 조선 땅에 태어난 것이 그리 한스럽지는 않다고 했다. 조선은 기자의 가르침을 이어 그 유풍을 계승한 땅이기에 예악 문물이 번성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서에 있어 문란함이 심하니 심법으로 바르게 다 잡겠다는 굳센 결의를 보이고 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는 중국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당시 학자들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다.

권11~12는 附錄이다. 洪大龜가 지은 行狀, 權愈가 지은 碣銘, 金楷가 지은 近嶌書院常享祝文과 李東標, 金宇泰 등이 지은 祭文, 姜栢年, 柳世哲 등이 지은 輓詞가 실려 있다. 이 권에 실려 있는 글을 통해서 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모습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가 후학 및 동시대 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그가 남긴 문집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재가 남긴 문집에서 그의 창작과 문학 대한 전반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저술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저서인 『彙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은 따로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 역사학자로 많이 연구된 이유가 이 두 저서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저서를 통해 그의 역사관과 당대 현실을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문집의 작품에 반영되어 창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저서는 따로 떼어내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목재가 약관의 나이를 벗어난 20세에 『高麗史』를 『春秋左氏傳』의 例에 따라 정리한 뒤 『彙纂麗史』를 편찬하고 범례를 지었다. 그 뒤 꾸준한 수정 끝에 40세에 『彙纂麗史』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1659년 그의 벗이었던 鄭道應에게 보낸 편지에 "『麗史』가 완성되었는데, 그 편질이 50권입니다. 이전 선배들이 일찍이 뜻을 두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다행스럽게 편찬에 힘을 쓸 수 있었으니 榮辱이 가령 온다고 하더라도 부질없이 여긴지 오래입니다."[麗史垂完 爲秩者五十 前輩所嘗留意未就者 幸而辦此 倘來榮辱 看破空已久矣][7]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彙纂麗史』의 편찬 동기는 인근의 친우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적 토론을 나누었던 李榘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史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大國의 역사 기록에 小國의 일이 종종 상세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도리어 중국의 일이 실리지 않으니, 文體가 이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中國의 일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만, 자기 나라의 일을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漢陰 李德馨과 白沙 李恒福의 여러 공신들도 오히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 집안의 족보는 훤히 외우면서 자기 집안의 내력을 물어보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
> ……(중략)
>
> 우리나라의 法制·風俗·人材·政令·關防·機務·財賦·兵甲의 많고 적음과 沿革과 酬應, 變通은 모두 우리나라 책에 실려 있지만 가져다 상고하지 않고, 날마다 중국의 일을 열람해 다스리는 방법으로 일삼습니다. 비유하자면, 가난한 집에서 자신

7) 洪汝河, 『木齋集』 권4, 30면, <答鄭鳳輝 己亥>.

> 의 文券은 작아 자신들을 부유하게 하지 못한다고 여겨 내버리곤, 단지 이웃 부잣집의 文券만 가져와 상세하게 계산하여 잘 갈무리해 두고 부잣집의 文券이 많아져야 자신들도 많게 된다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비와 전택은 내 것이 아니기에 부유하게 될 길은 성글기만 할 따름입니다. 箕子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몇 개의 姓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네 개의 姓뿐입니다. 商臣과 楊廣의 亂이 우리나라엔 없었으며, 동방 사람들은 여자에게 柏舟의 節操를 지키게 하니, 군신·부자·부부에 대한 예의는 중국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아름다운 성품이 이와 같은데도 나라에 역사가 없으니 애석할 따름입니다. 지금 위로는 신라와 백제를 소급해 올라가려고 해도 번잡하여 완성하기 어렵지만, 史法이 명확하다면 후에 반드시 계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春秋左氏傳』의 예에 따라 고려의 역사부터 자르되, 宋, 金, 元의 일을 쓸 때 문장은 출입이 跌宕해야 하고, 존망의 사업은 숨기고 드러남을 두루 포괄해야 史家를 이루어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군주들이 기쁘게 보아 유용한 책이 될 것입니다.[8]

당대의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려하지않고, 중국에 역사를 모르는 것은 부끄럽게 여겨 공부하며, 우리나라 역사서는 고증해서 참고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의 역사서만 고증하여 인용하려 하는 세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商臣과 楊廣의 亂과 같이 부자간에 천륜을 저버리는 일도 없었고, 衛나라 태자 共伯의 아내인 共姜은 남편이 죽은 후 다시 혼인하지 않고 절조를 지킨 것처럼 우리 여인들의 절조 또한 중국에 비해 조금도 모자랄 것이 전혀 없으니 올바른 우리의 역사를 정립해 군신·부자·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리와 천륜, 절조를 바로잡아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일 역사서가 필

8) 洪汝河, 『木齋集』 권4, 1면, <答李大方 榘>, "至於史學 尤東人所不屑爲 大國史記 小國事往往致詳 而東史反不載 天下事 文體豈宜爾耶 且東人 恥不知中國事 不恥不知自家國事 漢陰 白沙諸公 尙然 他何望 譬慣誦別人譜牒 問以渠家事 則不知也 ……我國法制風俗 人材 政令 關防 機務 財賦 兵甲多寡沿革 酬應變通 都在我國書 不曾取攷 日閱中國事 以爲治術 譬如貧家拋却自家文券 以爲小不足珍已 只取隣之富 舍契券 詳算而堅藏之 夥則夥矣 而藏獲 由宅 非吾受用 其於致富疏矣 自箕氏至今 中國易幾姓矣 我國纔四姓 商臣楊廣之亂 我國無之 東方 人令女家柏舟 君臣父子夫婦 中國不能無愧於我 天賦如是 而國無史 可惜已 今欲上及羅濟 則煩而難成 史法旣明 則後必有繼之者 宜斷自麗史依左氏例 書宋金元事 文章要出入軼宕 其存亡事業 要隱映關涉 方成史家 令人堪讀 令人主喜觀 方爲有用書矣."

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역사서를 집필하게 됨을 피력하고 있다.

즉, 『彙纂麗史』는 『高麗史』의 내용을 축약하였지만, 단순한 요약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일정한 관점에서 이전 왕조의 역사에 대해 냉철한 재평가를 한 저서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열전의 비중이 높은데 『高麗史』의 내용을 답습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인물들에 대해 새롭게 평가하며 수록 인물들을 달리하였다. 그 이유는 주자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절의를 지킨 인물을 높게 평가하여 자신의 역사의식을 반영하고자 해서였다. 또, 『高麗史』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行人傳을 수록하여 국가 간의 문제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使臣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들의 중요성을 대두하였다. 이런 면모는 그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당시 효종이 주창한 북벌에 반대하며 무력이 아닌 使臣을 통한 국가 간의 외교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高麗史』에는 없는 주변국에 대한 기술을 外夷傳을 통해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明이 멸망하고 淸이 건국된 시점에 중화사상이 東國의 조선으로 옮겨왔다는 소중화 사상을 그가 내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通鑑提綱』은 총 13권 7책으로 첫머리에 이 책의 편찬 동기와 과정이 드러나 있는 安鼎福의 序文이 있고, 이어서 13개 조의 범례를 통해 서술원칙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고조선의 역사 1권과 고려 왕조 이전 시기에 해당되는 삼국시대의 역사 8권과 통일신라까지의 역사 4권을 다루고 있다. 목재가 살던 당시에는 주자의 성리학이 학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명분론과 의리론을 바탕으로 한 강목체의 역사 서술이 유행하였다. 강목체는 주자가 의리와 명분에 입각하여 저술한 『資治通鑑綱目』에서 유래하였는데, 宋代 대표적 역사학자였던 司馬光이 저술한 『資治通鑑』을 기반으로 의리와 명분에 의거한 포폄을 綱과 目으로 나누어 저술한 것이다. 당시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東國通鑑提綱』 역시 주자의 정통론에 기반을 둔 강목체의 형식으로 기술된 역사서에 해당이 된다. 책의 첫 장에서는 책명을 『木齋家塾東國通鑑提綱

』으로 표기하였고, 손자 洪大龜가 쓴 행장과 문인 權愈가 쓴 묘갈명에서는 책명을 『東史提綱』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安鼎福이 지은 序文과 목판의 판심제에 『東國通鑑提綱』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근거하여 주로 이 書名으로 불리게 된 듯하다. 이 책은 그가 예천의 福泉村에서 머물다가 다시 栗里의 山澤齋로 돌아온 53세의 만년에 범례를 만들고 편찬을 시작하였다. 젊은 시절 고려의 역사를 정리한 『彙纂麗史』를 편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역사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응축하여 東國 역사의 정리와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그의 만년에 편찬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너무 늦은 시작이었는지 하늘은 그에게 이 책을 완성할 만큼의 시간을 주지 않았다. 결국 이 책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55세에 영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安鼎福이 지은 序文에서 이 책의 편찬 배경과 목적을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金富軾의 『三國史記』는 다만 古記의 片鱗들만 고증을 삼아 소략하고 잘못되어 전혀 史法이 없고, 『東國通鑑』은 조금 취할 만하지만 논의할 곳이 많다."라 하고, 거기에다 수정을 가하여 주자 綱目의 예에 따르고 이름을 『東國通鑑提綱』이라 하였다. 이 책은 의당 『東國通鑑』처럼 고려말에서 끝이 나야 하는데 三國에서 그쳤으니, 아마도 완성되지 못한 책인 듯하다.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 차례와 節目이 모두 법도가 있다. 箕子에서 시작하여 정통의 서두로 삼고, 馬韓으로써 뒤를 이어 衛滿의 참람함을 배척하고, 馬韓이 망하기 전까지는 삼국의 임금에 대해 모두 신하의 예를 쓰고 왕으로 일컫지 않았으니, 이것은 실로 史家의 正例이다. 계통이 바로잡히면 僭僞가 자연스럽게 분간되고 僭僞가 분간되면 名義가 정해지는 것이니, 『春秋』가 이루어짐에 亂臣賊子가 두려워한 것은 名義가 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또 중국의 정통을 이은 세대에 대해서는 반드시 '春皇正月'을 써서 一統을 크게 여긴 『春秋』의 의리를 밝혔다. 그러므로 우리 동방이 단군과 기자 이후로 비록 천자의 통치권 밖 먼 곳에 있었으나 한결같이 중국을 존숭하여 諸侯로서의 법도를 삼감이 전후로 같았던 이유이다. 이것 때문에 君子國이란 호칭이 있었고, 다른 오랑캐들이 중국을 침략하여 僭亂의 죄를 범하던 것과는 달랐던 까닭이다.[9]

9) 安鼎福, 『順庵集』 권18, 21면, <東國通鑑提綱序>, "金氏三國史記 只憑古記斷爛之傳 踈畧訛謬 全無史法 東國通鑑 稍有可取而亦多可議 就加檃括 依紫陽綱目之例而名曰東

이 책은 東國의 역사를 기술한 金富軾의 『三國史記』는 소략하고 잘못되어 볼 만한 것이 없고, 『東國通鑑』은 취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논의해야 할 곳이 많으니 여기에 수정을 더해 주자 綱目의 예에 따라 편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계통이 바로 잡히면 僭僞이 구분되고 名義가 정해지기 때문에 『春秋』의 정신이 구현됨이 이 책의 중요한 편찬 목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기존 역사서에는 없던 중국의 역사서를 덧붙이고, 東國의 역사는 기자에서 시작되는 것을 정통으로 삼고, 마한으로 뒤를 이어 신라로 이어지는 계통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계통이 바로 잡히게 되니 名義가 바로 서 우리나라가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랑캐들이 침범하지 못하여 君子國이라는 명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은 기존 사료에 드러나는 역사 지명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이해해 우리나라의 영토를 요동지역까지 확대시켜 역사적 영역에 대한 확장을 이루어 내려고 시도하였다. 또, 사론들을 추가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군신 관계가 아닌 賓主 관계로 보아 중국의 정통성을 잇는 것은 바로 조선이라는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존 역사서의 왜곡된 부분은 밝히고 교정하여 正例에 맞게 기술한 史書의 기준을 제시한 성과가 있는 저서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國通鑑提綱 此當依東鑑 止於麗末而止 於三國則盖未成書也 今讀是書 次第節目 皆有法度 始於箕子 爲正統之首 繼以馬韓而斥衛滿之僭 馬韓未亡之前 三國之君 皆用臣例 不得稱王 此實史家之正例也 統正而僭僞自分 僭僞分而名義得定 春秋成而亂臣賊子懼者其不以名義之得定而然歟 不特此也 又於中國正統之世 必書春皇正月 以明春秋大一統之義 是以吾東方自檀箕以後 雖在荒服之外而一脉尊中夏謹侯度之節 前後一揆 此所以有君子國之稱 異於蠻狄之猾夏而歸於僭 亂之科也."

Ⅲ. 목재 홍여하의 문예의식

權愈가 쓴 묘갈명에 “저술은 『四書發凡口訣』·『周易口訣』·『儀禮考證』·『彙纂麗史』·『東史提綱』과 문집 약간 권이 있으니, 총괄해 보면 공의 뜻과 학업을 알 수 있을 것이다.”[所著有四書發凡口訣 周易口訣 儀禮考證彙纂麗史, 東史提綱 文集若干卷 統觀之 可以審公之志業][10]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목재는 그의 문학관을 살펴볼 수 있는 12권 6책의 문집을 남겼고, 『彙纂麗史』 50권과 『東國通鑑提綱』13권 7책에서는 그의 역사관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철학관은 『四書發凡口訣』·『周易口訣』·『儀禮考證』의 저술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周易口訣』·『儀禮考證』은 소실되어 지금 전하지 않고, 『四書發凡口訣』은 산질되어 그 전체가 전하지 않고 그 내용 중 일부가 <四書發凡口訣>이라는 작품명으로 문집에 수록되어있다. 그러나 문집에 수록되어있는 <四書發凡口訣>과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그의 철학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가 남긴 저술을 살펴보면 그는 문학과 역사, 철학을 두루 갖춘 당시 선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학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이런 저술의 근간이 되는 그의 문예의식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道本文末의 인식 계승

목재는 평생을 주자와 퇴계를 존숭하였다. 그가 얼마나 주자와 퇴계를 따르고 싶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남긴 여러 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중 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日把朱書課作程　　날마다 주서를 공부할 일정 잡으니
空山晝永愜幽情　　빈 산 긴 낮에 그윽한 정이 상쾌하네

10) 洪汝河, 『木齋集』 권11, 22면, <碣銘 幷書>.

炎蒸已向吟邊失　찌는 무더위 읊조리는 가에 물러가고
爽籟還從靜裏生　시원한 바람 고요한 가운데 불어오네
經卷玩時疑亦豁　경서 완미할 때 의심 또한 탁 트이고
蒲團坐處興彌淸　부들방석 자리에 흥은 더욱 상쾌하네
晦翁趣味今方會　주자의 취미를 이제 알 수 있겠으니
休怕年來病眼盲　근래엔 병든 눈 멀 걱정도 않았네[11]

위 시에서 언급한 朱書는 퇴계가 『朱子大全』에 있는 편지글 1,700여 편 중에서 1,008편을 뽑아 20권으로 편찬한 『朱子書節要』를 가리킨다. 『朱子書節要』는 퇴계가 평생 주자를 흠모하여 그의 편지 중에 사상과 학문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잘라 후대의 학자들이 두고두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찬하였다. 그런 『朱子書節要』를 목재는 공부의 일정에 넣어 날마다 읽었으며, 읽을 때는 찌는 듯한 무더위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다고 하였다. 經書를 보면서 의심되는 부분이 해결되니 읽는 자리에 흥이 절로 돋아 마음은 상쾌해져 눈이 멀 걱정조차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퇴계가 주자를 흠모하여 지은 책을 목재는 이만큼 아끼고 즐겨 읽었으니 목재가 주자와 퇴계를 얼마나 흠모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의 文에 대한 인식 또한 주자와 퇴계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

주자는 유학을 계승하여 道本文末에 기반을 둔 성리학으로 발전시켰으며, 퇴계 또한 이런 성리학에 침잠하여 조선의 대표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였다. 성리학이 조선의 학문을 주도하게 되었고, 그 결과 道學과 文學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도학적 의식이 주도하게 되었다. 하물며 그는 평생 주자와 퇴계를 존숭하였기 때문에 文에 대한 인식 역시 道本文末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의식은 그가 지은 <文苑傳>에서 확실히 살펴볼 수 있다.

> 옛날의 군자는 道를 밝히는 데 힘썼지 문장을 짓는 데 힘을 쓰지 않았다. 오직

11) 洪汝河, 『木齋集』 권2, 25면, <讀朱子節要有感>.

> 道를 깊게 밝히면 말에 드러난 것이 눈부시게 빛나서 문장이 되므로 문장을 짓는 데 힘을 쓰지는 않았다. 道를 밝히는 데 힘을 쓰지 않고 단지 문장을 짓는 것만 일삼으면 비록 말은 공교롭지만 이치에 닿지 못한다. 하물며 반드시 공교롭지도 않으니, 우리나라의 문장이 볼품없게 된 까닭이다.[12]

옛 성현들은 道를 밝히는데 힘쓰고 문장을 짓는 데는 힘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道學을 근본으로 하여 깊게 밝힌다면 말에 드러난 것은 빛나서 자연스럽게 좋은 문장이 되기 때문에 글을 짓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글 짓는 데에만 치중하면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 말이 공교롭게 되지만 더 이상의 이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장은 말이 공교롭지도 못하고 이치에도 닿지 못하니 더 볼 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공부에 있어서는 올바른 과정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였는데, 그 방법으로는 道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道를 밝히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그 방법은 일상의 쉬운 곳에 있으니, 그 일상 속 쉬운 곳을 찾아 몸에 체득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말로 표현한 것이 올바른 道가 되면 부여받은 기질과 공부의 과정이 일맥상통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목재는 道를 근본으로 하여 밝히고, 밝힌 道를 익숙히 몸에 체득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글의 공교로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그의 생각은 퇴계가 지은 <讀書>라는 시에 "책은 천년의 마음을 전하지만 책을 읽어도 알기가 쉽지 않네. 책 가운데 성현을 대하니 말한 것이 모두 내가 일삼을 것이네."[書傳千古心 讀書知不易 卷中對聖賢 所言皆吾事][13]라고 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퇴계도 단지 글만 읽었을 때는 글 속에 성현들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글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일처럼 몸에 체득하고 나니 모두 이해가 되었다는 것이다. 목재 역시 道에 대한 공부는 성현의 글을 읽는

12) 洪汝河,『木齋集』권9, 31면, <文苑傳>, "古之君子 務明道 不務爲文 惟其深明乎道 發於言者 燦然而成章 非以爲文也 不務明乎道 而徒事乎文 則言雖工 而不達乎理 況未必工乎 則東國之陋也."

13) 李滉,『退溪集』권5, 34면, <讀書>.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지만,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에 체득이 되어야 진정한 공부가 됨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2. 明理의 탐구와 條理의 강조

목재는 글을 지음에 있어서 明理, 즉 이치를 밝히는 탐구가 선행되어야 좋은 글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우와 조카들과 때때로 四書공부를 하면서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묻고 따진 것을 기록한 글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고인들은 글을 짓기 위해 이치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저절로 좋은 글이 되었기에 일찍이 문장을 짓는 지름길을 언급하지 않았다. 朱子께서도 일찍이 입으로 문장의 이로움과 병통에 대해 말했지만, 註釋의 글 가운데에서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았고, 글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저절로 깨닫게 하였다. 林希逸이 『莊子』를 주석하면서 모두 문장의 좋고 揚揚함만 말하였는데, 莊子의 본뜻은 이와 같지 않으니, 어떻게 후세의 揚子雲이 될 수 있으랴. 명나라 사람들도 이런 병통이 있었다. 杜元凱가 『左傳』을 주석하면서 몇 개의 凡 자에 대해 하나하나 세어 가면서 예를 밝혔는데, 고인들의 독서가 한 글자도 구차하지 않음이 이와 같았다. 하물며 朱子는 사서집주에 일생의 정력을 다했으니, 그 공이 어찌 左丘明보다 못하겠는가. 한 구절 한 글자도 모두 내력이 있고 쓴 이유가 있으니, 읽는 자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한다.[14]

옛 성현들은 글을 짓는데 지름길은 언급하지 않았고, 이치를 밝히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좋은 글을 지었다고 하였다. 四書集註를 편찬한 朱子도 이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탐구하여 이치를 밝혀보도록 하였다. 글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14) 洪汝河, 『木齋集』 권9, 31면, <四書發凡口訣>, "古人爲文 主於明理 而自然成章 未嘗言及文章蹊徑上也 朱先生 亦嘗口說利病 而無一字於註文中及之 使善觀者 自然曉得 林希逸註莊子 都說文章好揚揚地 莊子本意 不如此 安得爲後世之子雲乎 明人 亦坐此 杜元凱註左傳 歷數幾凡字以明例 古人讀書 一字不肯苟如此 況老先生集註 殫竭一生精力 其功豈 下於素臣乎 一句一字 皆有來歷有下落 讀者宜盡心焉."

다. 많은 글을 읽어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글을 잘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좋은 글을 많이 읽어 해박한 식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글을 읽기만 하고 스스로 탐구하여 이치를 밝히지 못하면 그 글은 단지 이 전의 글을 옮겨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치열한 탐구에 이르러야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이치가 자신의 생각이 되어 글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오게 된다.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글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글이 되어 후대에 회자되며 오래 남지 못하는 폐단은 아마 明理를 탐구하는데 힘쓰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것이다. 목재는 수많은 글이 답습에 그치지 않고 名文으로 이름나기 위해서는 이치를 밝히는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예로 孔子와 孟子의 유학을 계승한 주자의 학문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四書集註를 남겨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宋나라의 林希逸은 『莊子』를 주석하면서 모두 의기양양함만을 말하여 莊子의 본뜻과 달리했기 때문에 『太玄經』을 지은 揚雄같은 훌륭한 문장가가 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와 반대로 晉나라의 杜預는 『左傳』을 주석하면서 몇 개의 凡자에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불변의 제도와 周公이 전한 법, 史書의 제도와 문물을 孔子께서 그대로 따라 편수하여 글의 전체 제재를 삼아 예를 밝혔음을 드러내어 옛 성현들의 글을 읽으면서 한 글자도 소홀하게 지나치는 법이 없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주자도 四書集註의 편찬을 위해 일생의 힘을 다하였으니 그 공이 『左傳』을 지은 左丘明에 버금가니 읽는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진심을 다해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의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며 그들에 대한 평가가 남긴 저서에 의해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글을 지음에 이치를 밝히는데 주력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강조하였다. 많은 글을 남기는 것보다는 이치의 탐구에 매진해 정력을 다해 지은 훌륭한 한 편의 글을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보아 목재가 얼마나 글쓰기에 있어서 이치를 밝히는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목재는 明理의 탐구가 선행되고 그 바탕으로 지은 글은 條理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끝없는 노력으로 혼자 明理를 탐구하여 글을 지었더라도 그 글이 조리가 없다면 읽는 사람들에게 그 이치가 오롯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李允諧에게 보낸 편지에 글쓰기에서 條理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 이전에 읽던『史記』는 다 읽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책을 읽고 있습니까?『史記』는 읽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읽었다면『左傳』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史記』를 읽는 이들이 반드시『左傳』을 읽는 까닭은 요컨대 서로 바탕이 되어야 그 가치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대개『左傳』은 정밀하지만『史記』는 거칠며,『史記』는 성글지만 거침없어 통창하고『左傳』은 정교하면서 세밀합니다.『左傳』을 읽고『史記』를 읽지 않으면 반드시 껄끄러우면서도 막히는 근심이 있고,『史記』를 읽고『左傳』을 읽지 않으면 웅건하고 호방하지만 정리와 요약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취하여 서로 보탬이 되고 난 뒤에 그 아름다움이 온전하면서 두 가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史記』읽기는 좋아하지만,『左傳』을 읽는 자는 전혀 없습니다.『左傳』은 條理와 脈絡을 위주로 하여 精巧함이 후대의 문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동방의 글은 비록 때로 좋은 곳이 있기도 하지만, 照應의 정밀함이나 명확함이 전혀 없는 까닭은『左傳』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15]

편지의 서두에 안부로『史記』를 다 읽었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이전에 공부를 위한 교재로『史記』읽기를 권하였는 듯하다. 그리고 나서는『史記』를 다 읽었다면 이어서『左傳』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아마 당시 선비들이『史記』읽는 것은 좋아하였지만,『左傳』을 읽는 것은 꺼렸던 실정을 반영하여 말한 것 같다. 壬亂 이후 조선은 수사적 화려함을 추구했던 문풍에 대한 각성으로 秦·漢 復古主

15) 洪汝河,『木齋集』권4, 21면, <答李九成 允諧>, "前讀馬史 卒業否今方讀何書 不讀馬則已 旣讀 左氏不可不讀也 中國人讀馬者 必讀左 要以相資而盡其美也 蓋左精而馬粗 馬疏爽而左工緻 讀左而不讀馬 必有澁滯之患 讀馬而不讀左 則踔厲壯浪而欠裁約 必取而相資 然後全其美 而無二者之患也 東人好讀馬 讀左者絶無焉 左氏以條理脈絡爲主 精巧甚於後世 吾東文字 雖時有好處 全欠照應精明 坐不讀左耳."

義가 유행하였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선비들 사이에서 『史記』가 유행하였고, 아울러 『左傳』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았다. 『史記』는 성글지만 거침없어 통창하고, 『左傳』은 정교하면서 세밀하여 서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 책을 다 읽어 껄끄러우면서 막히는 근심이 없게 하고, 웅건하고 호방하지만 정리와 요약이 부족함을 없게 해야 된다고 벗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나라 선비들의 글 중에 간혹 좋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웅장하여 照應의 정밀함이나 명확함이 전혀 없는 것은 『左傳』을 읽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史記』와 『左傳』읽기를 강조하였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東方俗醇仁	동방의 풍속은 순후하고 어지니
不居鄒魯下	鄒魯보다 못하지 않네
但恨文章陋	한스럽기는 문장이 고루하여
至今愧風雅	오늘까지 풍아에 부끄러운 것이네
史法全欠功	사법은 도무지 그 효과가 없고
詩格舛更野	시격은 어긋나 더욱 촌스럽네
爲告後來賢	후세 현인을 위하여 고하노니
努力學左馬	노력하여 左馬를 배우시라[16]

이 시는 목재가 당시 조선의 문단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느낀 점을 다섯 首의 시로 읊었는데 그중 네 번째 작품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공자와 맹자가 태어난 魯와 鄒나라 만큼이나 순수하고 어질지만, 문장이 고루해서 글에 있어서는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서를 짓는 법도 효과가 없고, 시의 품격은 법을 어겨 촌스럽기 그지없다며 한탄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司馬遷이 지은 『史記』와 左丘明이 지은『左傳』읽기를 당부하며 후세에 현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시 조선 문단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고 난 뒤,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담담한 듯 하지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즉, 글에 있어서는 웅장함과 정밀함이 照應을 이루어 이치를 밝히는

16) 洪汝河, 『木齋集』 권1, 26면, <感興 五首>.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史記』와 『左傳』읽는 것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글을 지음에 부박하고 허장됨에 빠지지 않고, 너무 정밀하여 조잡함에 그치는 폐단을 없앨 수 있어 글의 조리가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목재는 글을 지음에 明理 탐구가 핵심 요지가 되고, 條理가 요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明理의 탐구가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라면, 글의 條理는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즉, 글이란 쓴 사람의 훌륭한 생각을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좋은 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는 이 둘의 관계까지 고려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였던 것이다.

3. 存心養性을 통한 文의 體現

한 인물의 사상과 감정, 가치관들이 투영되어 글로 표현된 작품들은 詩를 필두로 하여 記, 序, 跋, 說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런 글 중에 뛰어난 것들만 모아 여러 번의 첨삭과 수정을 거쳐 편찬하게 되는 것이 개인 문집이라고 할 수 있다. 목재 역시 이런 문집을 남겼는데, 그 문집 속의 작품을 시기적으로 살펴본다면 대부분 목재가 벼슬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은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의 나이 40세 이후에 지은 작품들이 대부분이며, 젊은 시절에 지은 작품들은 손에 꼽을 만큼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목재는 왜 젊은 시절에는 문학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마 목재가 文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목재의 文에 대한 인식은 다음 작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平易함을 위주로 하지만, 올바른 공부 과정을 찾아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올바른 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도를 밝히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탁월한 견해이다. 그런즉 몸에 체

> 득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여 말에 드러나는 것이 저절로 沖夷渾雅하여 正道와 궤를 같이하면, 초연하게 부여받은 기질과 공부하는 과정의 表象을 얻을 것이니 저 중국 선비들이 어찌 두렵겠는가.17)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平易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도 올바른 공부 과정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한탄하고 있다. 올바른 공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현된 글은 올바른 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바른 공부 과정에 제일 우선은 道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道를 밝히고 나서 몸에 체득하고 마음으로 이해한 뒤 드러나는 글은 절로 좋은 글이 되어 正道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즉, 목재는 이런 공부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道를 밝히는 공부에 매진하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반열에 이르렀을 때 글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그의 문집 속 작품들은 대부분 그의 생애 후반기에 창작된 것들이 많은 까닭이다.

그렇다면 목재가 말한 道를 밝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四書의『大學』중에 明明德이라는 구절에 대해 贊하며 道를 밝히는 것이 무엇이며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 格物은 明德의 통함이고, 致知는 明德의 가득참이다. 誠意는 明德의 충실함이 되고, 正心은 明德의 곧음이 된다. 修身은 바로 明德의 이룸이고, 齊家는 바로 明德의 실행이다. 治國은 明德의 드러남이고, 平天下는 明德의 통달함이다. 明德의 통함은 敬으로 통하여 관철되고, 明德의 가득참은 敬으로 극진하게 한다. 明德의 충실함은 敬으로 그것을 참되게 하고, 明德의 곧음은 敬으로 그것을 하나로 한다. 明德의 이룸은 敬으로 그것을 밝히고, 明德의 실행은 敬으로 그것을 드러낸다. 明德의 드러남은 敬으로 그것을 돕고, 明德의 통달함은 敬으로 그것을 도탑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明德을 밝힘은 綱領 중에 大綱領이 되며, 敬은 처음과 끝을 관통하여 聖人의 공부를 완성하는 바가 된다."고 했다.18)

---

17) 洪汝河,『木齋集』권9, 31면, <文苑傳>, "吾東以平易爲主 然得其門而入者寡矣 不得其門 則不可謂之文也 故曰 莫若先明乎道 誠卓然有見乎是 則體之於身 會之於心 而其見於言者 自然沖夷渾雅 一軌于正道 超然有得於氣稟工程之表矣 彼中國之士 何足畏也哉."

그는 『大學』의 '八條目'을 인용하여 道를 밝히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道를 밝히는 것에 대해 敬을 통해 관철되게 하고, 극진하게 하고, 참되게 하고, 하나로 하게 한 뒤 다시 敬으로 밝히고, 드러나게 하고, 돕게 하고, 도탑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道를 밝히는 것이 大綱領이 되어 聖人의 공부가 완성에 이르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이 공부의 처음과 끝이 되는 바탕은 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주자는 『大學』에서 敬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지만, 목재는 明德에 대한 깊은 통찰 끝에 그 근본은 敬에 대한 공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주자가 주창한 성리학의 기본 핵심은 敬을 통한 인간 수양으로 마음을 잘 보존하여 본성을 잘 기르는 것에 있다. 목재는 그 뜻을 잘 이해하여 『大學』에서 道를 밝히는 것이 敬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알아내었고, 敬에 대한 공부가 즉, 存心養性하는 마음공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목재는 51세가 되던 1670년에 福泉村(현재 경상북도 예천군 금당리)으로 移居하여 집을 짓고 주자의 학문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편액을 '尊性齋'라고 걸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자신의 작은 강학 공간을 마련하는데, 尊性齋라는 편액에서 그가 끝까지 敬에 대한 存心養性의 공부를 놓치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이 공간을 마련하고 記文을 지어 存心養性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다.

> 군자는 배움을 귀하게 여깁니다.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분변하여 자신을 돌이켜 사욕을 이기며, 감히 조금도 그 공부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 까닭은 무릇 기품이 편벽되어 이지러진 것을 제거하면서 천지의 덕성이 온전하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孔子와 子思, 孟子, 周敦頤, 張載, 程顥, 程頤가 후인들을 가르친 까

18) 洪汝河, 『木齋集』 권9, 27면, <讀書劄記>, "格物者 明德之通 致知者 明德之充 誠意爲明德之實 正心 爲明德之貞 修身 乃明德之成 齊家 乃明德之行 治國 則明德之發 平天下 則明德之達也 明德之通 以 敬徹之 明德之充 以敬盡之 明德之實 敬以實之 明德之貞 敬以一之 明德之成 敬以明之 明德之行 敬以形之 明德之發 敬以翼之 明德之達 敬以篤之 故曰 明明德 爲綱領之一大綱領 而敬者 所以徹始徹終而成聖功也."

> 닭과 朱子가 道問學에 힘을 쏟은 이유가 모두 이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혹 부여받은 재주와 지혜에 치우침이 있어 일반 사람들보다 穎悟함이 특출나면, 반드시 고원함을 자처하여 남을 이기기에 힘씁니다. 재주가 고원하면서 남 이기기를 힘쓰면, 스스로 옳게 여김이 더욱 견고하여 사적인 뜻이 결국 완성되어 본성을 가리고 덮어 성현의 말 가운데 근사한 것을 취해 글로 드러냅니다. 그가 받들어 높이고, 잡아 지켰던 것은 바로 부여받은 재주와 私意를 합쳐 하나로 만들어 기질인 性의 나머지로 내는 것일 뿐이라서 德性의 本體가 아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천하의 이치를 넓게 보고 자신에게서 돌이켜, 기품의 치우침을 구제하여 이겨 낸 뒤에 私意를 제거하고 天理를 밝혀 덕성을 다시 나에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陸九淵이 남을 위하는 것과 학문을 하는 것은 영특하면서도 뛰어나 높게 千古를 보지만, 덕성의 본체는 이지러짐이 없을 수 없습니다.[19]

목재는 이 글에서 군자는 천지의 덕성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조금도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학의 창시자인 孔子와 그 계통을 잇는 여러 인물을 예로 들며, 모두가 道問學 공부에 힘을 쏟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存心養性의 수양에 매진하지 않고 혹 자신의 재주와 지혜가 특출나 남보다 뛰어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옳다고 여기며,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가리고, 성현의 말 중에 근사한 것들만을 취해 자신의 생각인 것 마냥 글로 드러내게 되는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군자의 학문은 天理를 넓게 보고 자신에게 돌이켜 사사로운 뜻을 제거하고 본연의 덕성을 온전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중국 南宋의 陸九淵이 주장한 남을 위해 혹은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는 학문은 결국 본체를 이지러트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평소 이런 생각을

19) 洪汝河, 『木齋集』 권6, 22면, <尊性齋記>, "君子貴夫學也 學問思辨 省察克治 不敢少懈其功者 凡以祛其氣稟虧欠之偏 而求全夫天地之德性者也 故孔氏思孟氏周張程氏之所以敎人詔後 朱氏之所以致力於道問學者 皆是物也 而其間或有稟才智之偏 穎悟出於衆人 則必自處高而務勝人 才高而務於勝 則其自是也愈堅 私意遂成而遮藏掩護 取聖賢之說之近者 而文於外 其所以尊奉持守者 乃稟才與私意 合而爲 一 出於氣質之性之緖餘耳 而不知非其德性之本體也 故君子之學 博觀天下之理而反諸己 以求其氣稟之偏而克治之 然後私意祛而天理明 德性復全於我矣 彼陸氏之爲人與爲學 穎悟超詣高視千古 而德性之體 不能無虧欠焉."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속에도 이런 의식이 투영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李玄逸은 행장에서 그의 글에 대해 칭송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 오직 그 마음에 보존한 뜻이 바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에 발휘된 것도 모두 溫雅하고 법에 맞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體를 얻었다. 비록 화초를 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입으로 읊고 붓으로 쓰면 또한 모두 법도에 맞아 볼만하였으니, 글에 기운이 없고 위축된 사람의 문장과는 참으로 같은 자리에서 논할 것이 아니다. 또 어찌 근세의 스스로 秦·漢 때의 글보다 낫고 揚雄이나 韓愈보다 낫다고 자랑하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함부로 지껄이고 經典에 어긋나고 이치에 배반되어 마침내 진실을 잃은 자와 견줄 수 있겠는가.[20]

이런 평가를 통해 목재가 일생을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다. 그가 평생 存心養性하며 수련한 뜻이 바름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글에 드러난 것도 모두 온아하고 법도에 맞게 체현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사소한 微物에 대해 읊더라도 법도에 맞아 볼 만했으니, 자기가 지은 글이 秦·漢 시대의 글이나 揚雄과 韓愈의 글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며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과는 견줄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칭송하였다. 목재가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存心養性에 있고, 그 뒤 깨우친 것이 자연스럽게 文을 통해 체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긴 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목재는 평생 存心養性의 마음 공부를 게을리한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자칫 소홀할 수 있을 나이에 접어들어서는 다시 尊性齋를 지어 자신의 수양 공간으로 마련하고 직접 記文을 지으며 의지를 다 잡았고, 인근의 知友가 그의 글에 대해 이렇게 칭송하였으니 그의 문집에 수록된 글은 모두 存心養性의 수양을 통해 文으로 체현된 것이라고 해도

---

20) 李玄逸, 『葛庵集』 권26, 9면, <通訓大夫司諫院司諫 木齋先生洪公行狀>. “惟其所存不失其正 故發爲文章者 亦皆溫雅典裁 得文從字順之體 雖至風謠花草 脫口肆筆之餘亦皆有典則可觀 其視爲文而闢靸猥下者 固不可同年而語矣 又豈與近世自謂跨秦軼漢掩跡楊韓而幻語胡說 詭經反理 遂失其眞者等哉.”

손색이 없을 것 같다.

4. 經世意識을 통한 治世之文의 具現

목재가 살던 당시 조선의 성리학자 대부분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道를 깨닫게 되고, 道를 깨달으면 천지만물의 이치에 통달해 道를 밝힐 수 있게 된다고 여겼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천리를 거스르지 않게 되어 글로 표현한 것이 모두 순하고 正導에 부합해 후대의 읽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올바른 공부이며 학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목재는 이런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평소 익힌 공부가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목재의 이런 생각은 평소 그가 權愈에게 했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木齋 洪公이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직 글에 능하지 못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바는 治世의 글을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그의 문집을 읽어보니, 어찌 진정 治世의 글을 배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治世의 글이란 곧 '도덕에 밝게 통달하여 그것을 말로 드러낸 것'이라 함과 같고, 治世의 글을 배움이란 곧 '먼저 바른 학문을 지향하고 옛 선현들을 도타이 믿어서 말이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글이 그 말을 잘 표현한 것'이라 함과 같다. 흘러들어 통하는 곳이 있는지라 흘러가기를 멀리하며, 근거하는 바가 있는지라 조리가 비로소 통하니, 治世의 道가 내면에 많이 쌓인 이후에 治世의 글이 밖으로 다소 드러나는 법이다. 이것을 일컬어 '강물이 먼저 있어야 그 물이 바다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다. 의리가 歸結하는 곳에는 근본이 있다. 그러므로 잘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치를 밝혔으니, 이치에 밝아지면 그 말이 도리에 맞아 후세에 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옛날의 군자가 經에 註釋을 달거나 책을 저술하거나 경우에 따라 立說하면서 여러 성인의 말씀을 절충해서 몸소 궁구하고 百家의 학설을 참작해서 바로잡고 분변했던 것은, 대개 다 이런 방법을 따랐다. 이미 이런 일을 잘못하면 곧 글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周子께서 후학을 경계하고 격려했던 것이고, 공이 부지런히 애써 도달하려 했던 것이었다.[21]

목재의 知友였던 權愈는 평소 목재가 그에게 했던 말을 인용하여 문집의 서문에 옮겨 놓았다.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道에 밝게 통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좋은 글이 되는데, 목재는 아직도 자신의 수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에 있어서는 능하지 못하다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였다. 하지만 자신이 정작 원하는 바는 治世의 글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禮記』<學記>에 "'三王이 냇물에 제사를 올릴 때 모두 먼저 하수에 제사를 올리고 그 뒤에 바다에 제사 지내니 하나는 발원처이고 하나는 흘러 모이는 곳이다. 이를 근본에 힘쓴다고 하는 것이다."[三王之祭川也 皆先河而後海 或源也 或委也 此之謂務本]라고 한 구절을 인용하여 물이 웅덩이에 가득 찬 뒤에 흘러 사방 바다로 가는 것과 같이 군자의 학문은 먼저 근본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였다. 독실한 자기 수양을 거쳐 글로 드러나게 되면 후세에 전해져 귀감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治世의 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군자의 학문은 혹독한 수양을 거쳐 道에 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은 이치를 근본으로 하여 여러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글을 짓되, 자만하지 않고 끝없이 궁구하고 바로잡아 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 시에서 목재의 이런 생각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童習群經白盡頭	어릴 때부터 경서 공부로 머리 다 새었는데
忽敎擺脫儘優游	홀홀 털어버리니 유유자적하기만 하여라
浩然鄒聖初難說	홀연히 돌아선 맹자도 애초 유세가 어려웠고
卓爾顔生歎末由	우뚝한 안회도 어찌할 바 몰라 탄식했네
亨利貞元元會運	원형이정의 천기가 운행되어
秋冬春夏夏商周	추동춘하에 하 상 주가 이어졌네

21) 洪汝河, 『木齋集』 권1, 1면, <木齋先生文集序>, "木齋洪公嘗語余曰 我未之能也 我所願則學治世之文也 乃今讀其集 豈不誠學治世之文者也 治世之文者 卽若云通明道德而發之言者也 學治世之文者 卽若云首嚮正學 篤信先師 言足以達其心 文足以達其言者也 有所輸也 流乃遠有所據也 條始達 治世之道多少畜於中 而後治世之文大小發於外 此謂源也委也 義歸有宗本 故善學者 先明理 理明則其言若於道 而可立於後世 故古之君子 或註經 或著書 或隨遇立說 折諸聖而體究之 參百家而端辨之者 蓋皆邀乎此也 旣其失也 卽如無文 此周子所爲戒勸後學 而公之所嘗孜孜以自幾者也."

若論行解相資處　　막힘없이 유행하여 의지할 곳 논하자면
此理應從實地求　　이런 이치는 응당 실제에서 구해야 하리라[22]

목재는 어려서부터 익힌 經書공부로 머리가 백발이 되었지만 自得하여 깨우친 바가 있으니 유유자적하기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옛 賢人이었던 孟子가 齊나라에서 道를 행할 수 없게 되자, 그 나라를 떠나면서 혹시 齊王이 마음을 고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사흘을 기다린 뒤에 떠난 일과 顔淵이 孔子의 道에 대해 바라볼 때는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어 夫子를 따라가고자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다는 일을 인용하여 道를 깨우치는 일과 깨우친 道를 통해 治世하기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道를 깨우치고 난 뒤 세상을 경영할 의식을 가지고 治世의 글로 구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옛 현인들의 일을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목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수양이 막힘없이 훤하게 되어 道를 깨우쳤다면 그것은 실제에서 구현하는 것이 의지할 곳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목재는 군자 학문의 최종 귀결처는 自得하여 자신의 만족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經世意識을 바탕으로 治世의 글로 세상에 구현되는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주변의 知友에게 자주 언급하였는데, 李玄逸도 목재의 이런 생각을 듣고 그의 말을 행장에 옮겨 놓았다.

> 또 일찍이 말하기를, “독서는 장차 이치를 궁구하기 위한 것이고, 이치를 궁리하는 것은 장차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세상에 經典을 궁구하는 사람이 어찌 한이 있겠는가마는 세상에 쓰임이 됨에 있어서는 經濟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백성을 사랑한다는 명성이 있을지라도 결국 백성을 사랑한 실상이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田政은 목민관으로서 가장 급선무인데, 수령 된 이들이 태만하여 소홀히 하니 통탄스러움을 이루 다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23]

22) 洪汝河,『木齋集』권2, 24면, <偶題>.
23) 李玄逸,『葛庵集』권26, 9면, <通訓大夫司諫院司諫 木齋先生洪公行狀>. “又嘗曰 讀書將以窮理也 窮理將以致用也 世之窮經者何限 及出爲世用 則不知經濟之爲何事 是

목재는 책을 읽어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고, 이치를 궁구하여 깨달음이 있고 난 뒤에는 세상에 쓰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론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기만 하고 실상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經濟를 알지 못해 세상에 쓰임이 없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經典에서 백성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 쓰임이 되지 못하니 결국에는 그 愛民의 실상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 어찌 백성을 사랑할 줄 모르겠는가. 그러나 이들이 愛民의 마음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뿐, 실상에 드러내지 못하니 三政의 하나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여 거두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가장 급선무가 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즉, 목재는 학자들의 공부가 이론적으로만 깨우쳐 자신에게 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깨우친 이치가 실상에 드러나 백성에게 쓰임이 있어야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학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기반은 아마 『大學』의 八條目에서 연원한 것 같다. 格物, 致知, 誠意, 正心, 修身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道를 밝히는 공부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齊家, 治國, 平天下의 남을 위하는 공부 경지까지 이르러야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당시 영남남인 학자들은 시대적, 정치적 상황 속에 맞물러 관직으로의 진출이 어려웠다. 그래서 은거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道를 터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후세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좋은 글을 남기는 것만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위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공부가 자신에게만 그쳐 治世의 경지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存心養性을 통한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울분과 한탄의 마음으로 창작한 글은 좋은 글이 될 수도, 후세에 귀감이 되지도 못하는 폐단이 생기게 됨을 경계하여 학문에 대한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을 가

故雖有愛民之名 而終無愛民之實 如田政最是人牧之所當先 而爲守宰者 慢而忽之 可勝痛哉.”

지게 되었다.

病餘春色滿江湖　　앓고 나니 봄빛은 강호에 가득하고
好雨仍霑土脈蘇　　고마운 비 흠뻑 적셔 토맥이 소생하네
草怒生時思茂叔　　풀이 힘껏 돋아날 땐 무숙이 생각나고
雷驚起處歎堯夫　　우레에 놀라 일어난 곳엔 요부를 탄식하네
道機浩浩乾坤闊　　도의 기틀은 넓고 넓으며 건곤은 탁 트였고
功業悠悠日月徂　　공업은 유유히 흐르고 일월은 천천히 가네
贏得癡聾翁意味　　어리석고 귀도 먼 늙은이의 바램은
一家天地亦唐虞　　온 집안과 천지가 요순의 시대 누리는 것[24]

이 시는 목재가 병을 앓고 난 뒤 느낀 감정이 있어 몸을 회복하자마자 바로 지은 작품이다. 노년이 되어 쇠약한 몸으로 심하게 앓고 나니 일상 속 봄빛과 봄비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풀이 살려는 뜻이 자신이 살려는 뜻과 같다고 하여 창 앞의 무성한 풀조차 베려고 하지 않았던 周敦頤와 둥근 달이 중천에 뜨고 상큼한 바람결이 물 위를 스칠 때의 청아한 맛을 아는 자가 적다고 탄식한 邵雍이 절로 생각 난 것이다. 사람이 아프고 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기 마련이다. 목재 또한 노년에 자신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안주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목재는 학문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道는 넓고 넓으니 道를 밝혀 온 집안과 온 세상이 堯舜의 시대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이 늙은 자신의 바람이라고 하였다. 사람이 몸이 쇠약해지게 되면 지탱하고있는 정신과 생각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병에서 조금 회복이 되자마자 이 시를 짓고 학문은 爲己의 수양 후에 爲人의 경지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이런 의식과 의지를 가진 목재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 제대로 된 治世를 해 보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한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24) 洪汝河,『木齋集』권2, 25면, <卽事>.

Ⅳ. 맺음말

17세기는 밖으로 동아시아의 질서가 재정립되고 있었고, 안으로는 전란의 극복을 위한 국가 기반의 재정비라는 대명제 속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 목재는 나라의 이념적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주자와 퇴계의 성리학을 영남남인의 독창적 사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목재의 사상과 가치관이 투영된 그의 저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저술에 반영된 문예의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당시 조선 문단을 주도하고 있는 문예의식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목재는 12권 6책의 문집에 다양한 장르의 글을 남겨 놓았다. 문집 속 목재의 모습은 따뜻한 감성이 있는 시인이기도 했고, 나라와 백성을 염려하는 충신이기도 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스승이기도 했다. 문집 속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글 때문에 목재의 모습도 여러 방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었다. 그는 특별 장르에 대한 글쓰기를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면으로 글을 지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가치관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에 맞는 장르를 선택하여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이런 면을 통해 그의 문학적 재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 그는 『彙纂麗史』와 『東國通鑑提綱』이라는 두 권의 굵직한 역사서를 남겼는데, 두 저서를 통해 그가 나라의 안과 밖으로 혼란한 시기에 냉철한 안목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으며, 국가와 백성을 위해 필요한 역사의식과 과제가 무엇인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목재가 남긴 저술을 통해서 목재 글의 바탕이 되는 문예의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데 첫째, 그는 평생 주자와 퇴계를 존중하고 흠모하였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강조한 道가 근본이고, 文은 말단이 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계승하였다. 그래서 항상 道를 밝혀 이해하고 몸소 체득하는데 주력하였고, 글을 짓는 데는 따로 힘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치를 밝히는 탐구가 선행되고 난 뒤 글의 맥락이 자연스럽

게 이어지는 조리 갖추기를 강조하였다. 그 방법으로 『史記』와 『左傳』 읽기를 제시하였으며,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과 읽는 사람의 입장을 염두해 좋은 글에는 明理와 條理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마음을 잘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오랜 수양을 통해 글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를 바랬다. 그런 글들은 온아하고 법도에 맞아 읽는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좋은 글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뛰어난 재주만 믿고 성급하게 글쓰기보다는 한결같은 存心養性의 수련을 통해 체현되어 자연스럽게 생각과 감정이 흘러나오는 글짓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道의 근본을 알고 이치를 파악해 조리를 갖춘 뒤 자신의 수양이 체현되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글짓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글이 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지어진 글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도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상 목재의 저술과 문예의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목재의 문집과 두 권의 역사서를 통해 그가 가진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런 문예의식을 바탕으로 글을 지었기 때문에 당시 주변의 학자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남겨진 저술이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장르별 작품 속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문예의식과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동안 역사가이며 철학가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지만, 추후 이어질 연구에서는 목재의 문학가적인 특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8월 1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9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김선화, 「洪汝河의 歷史認識」,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7.
김영택, 「木齋 洪汝河의 歷史意識과 文學觀 硏究」,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도현철, 「목재 홍여하의 역사서 편찬과 고려사 인식」, 『韓國思想史學』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박인호 , 「『동국통감제강』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퇴계학과 유교문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4.
박인호, 「『휘찬여사』「열전」에 나타난 홍여하의 역사인식」, 『장서각』 3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신항수, 「17세기 중반 홍여하의 전제의식」, 『韓國思想史學』 8,한국사상사학회, 1997.
우인수, 「목재 홍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韓國思想史學』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장윤석, 「17世紀 嶺南 南人 吳澐과 洪汝河의 歷史認識」,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전재동, 「讀書詩를 통해 본 洪汝河의 經書 解釋」, 『大東漢文學』 35, 대동한문학회, 2011.
전재동, 「洪汝河의 詩世界 硏究:文學論과 作詩 樣相 分析을 중심으로」, 『大東漢文學』 37, 대동한문학회, 2012.
전재동, 「木齋 洪汝河의 經學觀과 經書 解釋」, 『嶺南學』 2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3.
정성운, 「木齋 洪汝河의 文章論硏究」,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7.
추제협, 「17세기 영남 퇴계학파의 등장과 목재 홍여하」, 『동아인문학』 27, 동아인문학회, 2014.
최금자, 「木齋 洪汝河의 漢詩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2017.
최금자, 「목재 홍여하의 「述懷」 시에 반영된 사회현실」, 『嶺南學』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최금자, 「목재 홍여하의 교유양상 연구-교유시를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59, 동양한문학회, 2021.

홍원식, 「목재 홍여하의 생애와 성리설」, 『韓國思想史學』 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S.O. Kurbanov, 「『木齋家塾彙纂麗史』의 儒學傳」, 『규장각』 3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Abstract

Mokjae(木齋) Hong Yeo-ha(洪汝河)'s Writings and Literary Consciousness

Yang, Seung-ho

The 17th century was a very chaotic period under the great proposition that the order of East Asia was being reestablished outsi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base for overcoming the war inside. During this period, Mokjae(木齋) was a central figure in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Neo-Confucianism of Juja(朱子) and Toegye(退溪) as the original ideas of the Yeongnam Namin(嶺南南人). Therefore, in this thesi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is writings that reflect the ideas and values of Mokjae(木齋) and Th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the belief tha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terary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writing was essential for understanding the literary consciousness that was leading the literary circles of Joseon at the time.

Through the works of various genres that Mokjae(木齋) left in the writings of 12 volumes and 6 books, we could see his literary talent and through two large historical books,『彙纂麗史』and『東國通鑑提綱』, he was reading the flow of the times with a cool eye in a time of confusion and it can be seen that he wa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asks necessary for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rough this, the literary consciousness of Mokjae(木齋) could be concluded as the knowledge succession of Dobonmoonmal(道本文末), the investigation of Myeongri(明理) and the emphasis of Jori(條理),

the personification of literature through Jonsimyangseong(存心養性), and the implement of the writing that govern the world through the Gyeongse(經世) consciousness. Accordingly, it was possible to examine a rough understanding of the literary ritual that led the literary arts of Joseon in the 17th century and the unique literary consciousness of the Yeongnam Namin(嶺南南人).

keywords :
Mokjae(木齋), Hong yeo-ha(洪汝河), anthology(文集), writings, literary consciousness